

2025 새해 이렇게 **우승희 영암군수**

# “영암형 생산·소비·투자 순환경제 성공 모델 만들겠다”



## 디지털 영암군민 10만명 유치 등 생활인구 확대에 전력 대불산단 친환경 선박·해상풍력 기자재 등 신산업 육성

“지역 순환경제로 영암경제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나겠습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13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와 단결된 힘으로, 혁신의 본궤도에 안착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군민의 삶을 운택하게 만들기 위해 혁신 키워드와 10대 중점 목표를 추진해 한 단계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영암군은 올해 군정 키워드로 ▲영암만의 가치 재창출 ▲생활인구 확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영암 ▲똑똑한 스마트 행정 ▲군민과 함께하는 협치를 제시했다.

우 군수는 “생활인구 확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정책을 모든 군정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며 “소아청소년과 개원 등 고향사랑기부제를 선도하고 우수모델을 창출한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영암을 제2의 고향처럼 여기는 디지털 영암군민 10만명 유치를 목표로, 맞춤형 정보와 혜택을 제공해 관계인구확대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구상이다. ‘영암 한 달 살기’와 ‘워케이션 in 영암’ 같은 다양한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로 영암의 매력도 뽐낼 예정이다.

그는 또 ‘지역순환경제’로 새롭게 도약하는 영암 경제 르네상스 시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내비쳤다.

우 군수는 “정부의 세수 펄크와 교부세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를 혁신적으로 대응해 영암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자원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고, 그 이익이 다시 지역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경제는 지역의 자생력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순환경제는 지역이 협력하는 협동경제로 ‘구립 대중계’ 정신과 맞닿아 있다는 게 그의 설

명이다. 대중계 공동체 정신에 기반한 로컬푸드 활성화, 공공조달 개선,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으로 영암형 지역순환경제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구립마을에 마을호텔, 청년 창업 공간 등을 조성하고, 민관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체류형 문화관광지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골목경제 활성화와 대불산단 등 기업과 상생협약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그는 “모든 상가에서 지역화폐 ‘윌출페이’를 사용하도록 시스템을 갖춰 골목경제를 따뜻하게 하겠다”며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친환경 선박,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AI, 스마트 융복합 첨단 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2특화농공단지와 농촌 융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농공단지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영암의 찬란한 역사와 눈부신 문화, 그리고 아

름다운 생태자원을 융합해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 1번지 영암’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우 군수는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의 원활한 건립과 영산강 뱃길 사업, 삼무덤 주변 공원화 추진으로 마한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관광의 지평을 열겠다”며 “윌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을 거점으로, 문화예술회관, 공공도서관, 옛 대동공장 복합문화공간, 달빛생태도보를 잇는 생태관광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옛 대동공장은 복합문화공간을 작공해 매력적인 관광 명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구립마을에 마을호텔과 청년 창업 공간 등을 조성하고, 민관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구립마을을 대한민국 체류형 문화관광지로 육성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끝으로 우승희 영암군수는 “혁신의 궤도에 오른 영암호(號)는 이제 더 큰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항해할 것”이라며 “영암의 혁신과 도약을 위한 유대인 여정에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 해남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점은? ... ‘맛집’ 6곳 추가 지정

### 유튜브 채널 홍보, 친절·경영 교육

해남군이 지역의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 6곳을 ‘해남맛집’으로 선정했다.

올해 해남맛집으로 선정된 음식점은 도화지(해남읍), 대동명품한우(북평면), 돌고래식당(삼산면), 궁전회관(황산면), 대선정가든(송지면), 땅끝정인숙갈국수(현산면) 등이다.

해남맛집은 지난해 진미식당과 서성식당, 성내식당 3개소가 지정된데 이어 이번엔 6개소가 선정돼 총 9개소로 늘어났다.

도화지 식당은 해남읍 읍내길에 위치해 있다.

해남식 보리굴비와 계절한정식을 선보이는 음식점이다.

대동명품한우는 해남 특산물인 황칠을 이용한 갈비탕과 숙성 돼지갈비를 메뉴로 하고 있다. 돌고래식당은 해남 대표 먹거리인 닭코스 요리와 생갈비를 숯불에 구워내는 요리법으로 유명하다.

황산면의 궁전회관에서는 아나고 주물럭과 장어탕 등을, 송지면 대선정 가든에서는 하모샤브샤브와 닭코스 요리를 취급하고 있다.

현산면 구산리 정인숙갈국수는 해남산 팔오로 만든 팔 갈국수와 해물 갈국수를 판매하고 있어 미행사 등 주변 관광객을 찾는 이들이 자주 찾는다.

해남맛집은 공고를 통해 모집 및 추천을 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평가를 거쳐 해남군 대표음식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군은 해남의 맛집들을 소개하기 위해 유튜브채널인 ‘미미(味美) 원정대’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음식점 업주들에 대한 친절·홍보 및 경영마인드 교육 등을 통해 더욱 발전된 해남의 미식관광 이미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맛집 지정과 관리를 통해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해남의 미식을 즐기며 관광을 할 수 있는 미식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진도 옥주골 창작소, 입주 작가 성과공유회

진도군은 최근 ‘진도군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5년 옥주골 창작소 성과공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진도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인 옥주골 창작소에 입주한 1기 입주작가 5팀의 두 번째 성과공유회이며,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동안의 창작 과정과 결과를 선보이는 자리였다.

입주작가들은 ▲진도고개와 진도 전복을 주제로 지역 기획상품 개발 ▲폐현수막을 활용한 공유 우산 운동 ▲정소년 판소리 합창단 창단과 공연 ▲진도의 갯벌을 통한 소동 ▲진도 민속문화의 재해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도의 어제, 오늘, 내일’을 표현했다.

한 입주작가는 “창작소 입주 후 창작활동에도

많은 긍정적인 변화와 시너지효과가 있었고 남은 입주 기간에도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성과공유회 기간에 입주작가들은 관람객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지역 주민들에게 깊이 있는 문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입주작가들의 성과공유회는 옥주골 창작소 2층 갤러리에서 올해 1월 말까지 개최된다.

진도군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거점 공간이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 완도 노화권역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 2027년까지 263억원 투입

완도군은 노화권역의 환경 보호와 하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263억원을 투입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에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하수처리 용량(480㎥/일)이 50% (720㎥/일)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최신 하수처리 기술을 도입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뿐만 아니라 향후 20년 이상 하수처리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수처리 구역 확대로 삼마·미라·충도마을의 정화조를 폐쇄하고 공공 하수도도 생활오수를 저

리하게 대략취 개선 등 주거환경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완도군은 노후화된 하수관로(9.0km)를 정비해 하수처리장의 기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노화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노화권역의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공공수역 수질 보전을 위한 사업”이라며 “완도 청정해역을 지키기 위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신안군, 염전 현대화로 천일염산업 경쟁력 높인다

### 위생관리 강화 등 215억원 투입

### 바닥재 개선·자동화 장비 지원

신안군이 염전 현대화로 천일염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신안군은 천일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생산시설 현대화와 위생 관리에 총 215억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산시설의 자동화와 위생적인 생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염전 바닥재 개선 사업(37억원)과 자동채염기 및 이동수레 자동화 장비 지원(10억원)을 포함한다.

또 천일염의 장기 저장시설(2억원)과 포장재 지원(4억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천일염 유통단지 조성에 95억원,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1억원, 홍보 및 마케팅에 2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170억원 규모로 건립된 천일염 종합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저장·가공·유통 기능을 연계해 천일염의 유통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천일염의 판로 확대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해 자동 소포장기 도입(5억 원)과 수출 마케팅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근로 환경 개선에도 집중 염전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1:1 전담제를 실시하고, 100억 원을 들여 염전 근로자 안심숙소를 건립한다. 더불어 찾아가는 맞춤형 인건교육을 통해 근로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탐승형 전동대파기(소금을 염전 가장자리로 모으는 장비).

(신안군 제공)

박우량 신안군수는 “천일염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생산시설의 현대화와 위생적인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안정적인 생산 기반과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신안천일염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se@kwangju.co.kr

## 영광군 “2개월령 이상 강아지 등록 하세요”

###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 나서

영광군은 군민들의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다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영광군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정부24’(www.gov.kr) 및 ‘국가

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영광군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 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훼손 위험이 적고 동물을 분실했을 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영광군민은 무료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조성기 영광군 축산식품과장은 “동물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며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막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군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정원 기자 kcw@kwangju.co.kr

## 목포시 3월부터 상하수도료 10%·15%씩 인상

목포시는 3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 10%, 하수도 요금 15%를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과 상수도 요금은 2003년 이후 21년간, 하수도 요금은 2017년 이후 7년간 동결해 왔다.

이번 인상은 생산원가 대비 현저히 낮은 상수도 요금으로는 적자가 누적되고 처리시설 조성 등을 위해 요금 현실화가 요구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시민들의 요금 인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

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격년으로 3회 상수도 요금은 10%, 하수도 요금은 15%씩 인상할 예정이며, 2025년에는 2월 검침분부터 적용해 3월 고지분부터 인상된다.

가정용의 경우 상수도 1㎡당 520원에서 570원, 하수도 472원에서 546원으로 인상된다. 2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13㎥를 기준으로 기존 월 1만6660원에서 인상 후 월 1만8500원으로 1840원을 더 납부하게 된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